

인천공항 개항 18주년 “2023년 세계 3위 목표”



인천국제공항이 지난달 29일로 개항 18주년을 맞았다. 인천공항은 동북아시아를 잇는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한 세계공항서비스평가(CASQ)에서 12년(2006~2017) 연속 1위를 달

안상수 의원과 서울지방항공청 이윤규 청장을 비롯한 인천공항 상주기관장과 관계자, 공사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2001년 3월29일 개항한 인천공항은 개항 직후인 2002년 국제여객은 2055만명으로 세계 10위에

2002년 국제여객 2055만명...세계 10위
지난해 T2 개항...여객 1900만명 돌파
연평균 7.7% 성장...2018년 6768만명

성하며 세계 5대 공항으로 성장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개항 18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공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유한국당

불과했다. 그러나 연평균 7.7%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개항 이후 18년만에 개항 초 대비 3배가 넘는 6768만명의 국제여객을 기록해 파리 샤를드골 공항(6638만명), 싱가포르 창이공항(6489만명)을 제치고 세계공항 순위 5위를 달성

했다. 또한 지난해 1월18일 제2여객터미널(T2)이 개항하면서 1년(18.1.18~19.1.17)만에 누적여객 19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2터미널의 개항으로 인천공항의 여객수요는 연간 5400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늘었고, 여객 분담률은 1터미널이 72%, 2터미널 28%를 분산하고 있다. 공사는 2터미널의 개항으로 터미널의 혼잡이 완화됐고, 출국시간이 단축되는 등 여객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재4활주로 신설하는 등의 대규모 인프라 확장사업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2터미널의 연간 여객수용 능력은 현재 1800만명에서 46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전체 여객수용능력은 현재 7200만 명에서 1억명으로 증가해 세계 3대 공항에 진입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7만여 공회가족의 노력에 힘입어 개항 18년만에 동북아 허브공항이자 국제여객 기준 글로벌 탑 5위 규모의 초대형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을 넘어,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서울시, 오는 5일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 개최

13개사 채용관 현장면접
35개 업체 구인정보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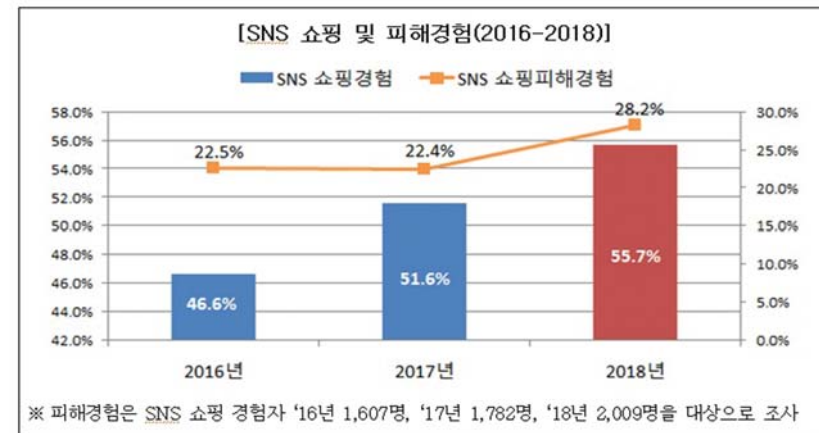
서울시는 오는 5일 오후 1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시민청에서 제11회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취업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는 176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이 연 1~2회 개최된 취업박람회와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센터인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류와 상담을 통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박람회에서는 통·번역사, 외국어강사, CS상담원,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1:1 현장면접을 진행하거나 구인정보를 게시한다. 결혼이민자들이

구인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는 한국어가 서툴러 면접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등 결혼이민자 통역사들이 현장 지원한다. 현장 면접 통과자의 2차 동행면접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교원크리에이티브, 세계인류투어 등의 일반기업 9개, 결혼이민자가 운영하는 모두북, 레인보우해피잡 등 협동조합 등 4곳의 채용관에서 1:1현장면접을 진행한다. 35개사의 구인정보가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채용관 이외에도 취업지원관, 컨설팅관 이벤트관 운영관 등 총 5개관으로 운영된다. 취업지원관의 취업멘토링 상담부스는 통·번역 및 강사로 전문성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취업 선배 10명을 섭외해 각 분야의 취업전략 및 노하우를 전수한다. 컨설팅관은 노동법률상담, 퍼스

널컬러 진단 컨설팅, 이력서작성·면접스킬, 직업카드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면접 및 자기소개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는 면접컨설팅 부스에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전문가의 1:1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 계약 등 노동 문제에 관한 상담을 서울시급한 구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관에서는 취업모드가 담긴 이민의 한수 만들기, 고급도장 제작 및 증명사진 촬영·인화를 진행해 결혼이민자의 취업동기부여 및 취업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센터인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45-5433)에 문의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마켓 소비자피해 급증

피해금액 2700만원에 달해...환불·교환 거부 78.5% 1위



서울시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과 쇼핑이용 실태 및 피해사항을 살펴보는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실태 및 태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전자상거래 이용경험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자의 90.3%(3610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SNS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45.2%)이었다. 이어 ▲페이스북(37%) ▲유튜브(36.3%) ▲블로그·카페

(31.9%) 순이었다.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높은 인지도와 SNS 상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상 유명인)가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SNS를 통한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3%였던 소비자피해경험이 올해는 28%로 증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관련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2700만원에 달한다. 센터에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구매유형'은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연결된 해외사이트 구매가 62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DM/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한 ▲판매자 직거래 47건(32.6%),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링크된 ▲인터넷쇼핑몰 구매 20건(13.9%), 블로그/카카오톡 등 ▲포 다문 SNS 연결구매가 15건(10.4%)이었다. '피해유형'은 환불 및 교환거부의 '계약취소·반품·환급'이 113건(78.9%)로 가장 많았다. 입금 또는 배송 후 연락두절되거나 인스타그램 댓글을 폐쇄하는 '운영중단·폐쇄·연락처가'가 13건(9.0%), '제품불량·하자'가 7건(4.8%)로 뒤를 이었다. 상품구매 후 불만해결 방법은 판매자 문의가 53.3%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해당 SNS 고객센터 이용(31.5%), 그냥 넘어감(29%), 소비자 상담기관 의뢰(17.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 상담기관 의뢰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 전자상거래 피해 소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인서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를 통한 상품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DM·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한 직접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며 "특히 고가 유명브랜드 합인 판매광고로 연결되는 해외 사이트는 해당 브랜드를 사정한 사기사이트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장 1년 청년문화예술공간 사각사각플레이스...1만8천명 방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잠실한강공원에 조성한 '사각사각플레이스'가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연말까지 1만 8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각사각플레이스는 청년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하는 공간이다.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 청년예술가들이 13개 컨테이너(2.4m×6.0m)에서 활동 중이다. 이곳은 입주청년예술가들이 다양한 외부활동과 시민참여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작품활동의 원동력을 얻고 창업 가능성 등 새로

운 문화공간 지원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이 곳에서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했다. 7월 한강몽땅 축제와 연계해 '남민예술병원', 9월에는 '가을동감', '굿데이페스티벌' 등 청년예술가가 주도한 축제를 3회 진행했다. 시는 올해 5월에도 오픈 1주년 행사를 시작으로 '남민예술병원', '가을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사각사각플레이스를 청년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행사 및 동호회에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시민 활동에도 적극 개방할 방침이다. 시는 사각사각플레이스를 통해 올해도 적극적으로 청년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뉴스시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